

사람과 사람사이



월드컵 개막식 참석



■ 황인구 회장은 5월 3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02 FIFA 월드컵 개막식에 장지홍 부회장, 남정학 전무등과 함께 참석했다.



참석, 최근 협회동향과 브랜드화 사업 추진 내역, 국산한약재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방침등에 대해 설명했다.

단신

경남도지회 정기모임



■ 김정만 경남도지회장은 6월5일 도지회 정기모임을 갖고 도지회 활성화 방안과 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회원들과 논의했다.

강원도 지회회의



■ 허수 강원도지회장은 5월29일 강원도 정선군 화암약수터 화암모텔에서 강원도 지회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지회 회원들의 회비징수 문제와 도지회 조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 지회회의

■ 배성한 경북도지회장은 5월24일부터 25일 1박2일 일정으로 도지회 정기모임을 갖고 도지회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회 남정학 전무가

국산약재 브랜드화 추진 실무위원회의 개최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오는 18일 협회 사무실에서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국산한약재 포장디자인 및 통일된 이미지 부여를 위한 협회 공관장 간판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은 수입약재의 홍수 속에서 국산한약재의 유통차별화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약협회가 2000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국산 한약재 경쟁력 제고대책 방안의 하나다. 이날 실무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달 말경 이사회 개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

지난 5월22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출장소 2층 회의실에서는 2002년도 상반기 농산물 명예감시원 교육이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협회 경기도지역 명예감시원 이진경 안산시 지부장, 서울지역에서는 엄경섭 중앙이사, 정준웅 지회

장, 안지명 중앙이사 등이 참석, 원산지·GMO 표시제도 개요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자생생명공학연구소 개소식

자생생명공학연구소(소장 안덕균)가 6월8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6-10 진덕빌딩 202호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안덕균 소장은 "새로운 실험기와 동물실험장비 등 선진화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한의학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사

[임명]

△전강홍 경북 안동시 공판장장(2002.4.30일부) △임재석 충북도 지회장(2002.5.22일부) △김석중 경남 남해군 지부장(예정) △배익성 경남 김해시 지부장(예정)

[해임]

△김운호 충북 영동군 지부장(2002.5.22일부) △이효정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판장장(2002.5.22일부)

[사임]

△이한승 충북도 지회장(2002.5.22일부)

[명의변경]

△오한수 부산시 북구 공판장장→부산시 북구 지부장(2002.5.16일부)

[내방]

△임연학 명예회장 △정형모 부회장 △장지홍 부회장 △백문기 부회장 △황용수 중앙이사 △박종연 중앙이사 △정준웅 서울시 지회장 △이계용 경기도 광주군 공판장장

신간안내

쉽게 키우는 야생화 | 봄 | 여름 | 가을 |

우리나라에는 사계절 내내 많은 야생화가 피고 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천 종의 토종꽃이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깊은 산의 골짜기나 들판에서 자라다가 더러는 자연의 파괴로 멸종되기도 한다.

이 책의 공저자이자 한국야생화연구회장인 김태정 씨는 우리땅에서 나는 토종꽃 가운데 이름이 없는 꽃은 단 한 종도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봄과 여름·가을 편으로 나눠 179종의 야생화를 꽃 색깔 별로 분류해 학명, 과명, 약재용 이름과 별칭, 분포지 등을 적어 놓았다.

또 야생화 심는 법, 물·햇빛·거름 주는 법, 번식법, 야생화 가꿀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직접 재배하고 관리하는 요령을 배란다용과 정원용으로 나눠 설명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야생화를 쉽게 재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 야생화 재배법과 함께 야생화 사진을 함께 담아 야생화 식물도감으로도 손색이 없다.

김태정·강은희 지음/ 현암사/각 1만2천원/문의:02-365-5051

몸에 좋은 차 이야기

녹차, 홍차, 우롱차, 동굴레차, 동규자차, 감잎차 등 우리들이 오래 전부터 즐겨 마시던 차가 많다. 요즘은 커피에 입맛이 많이 길들여져 있지만 녹차가 차매를 예방하고, 입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는 등 전통차의 효능이 속속 밝혀지면서 전통차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에 차를 제대로 마시고 즐기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책에는 차의 유래와 종류, 제조, 성분, 맛과 향기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녹차·홍차·우롱차 마시는 방법, 여러 가지 차를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차와 다구의 선택 및 보관 요령 등 일상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발암 억제, 노화방지, 콜레스테롤 저하, 해독작용, 충치예방, 치매예방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차의 다양한 효능을 알려주고 있다.

이밖에도 세계의 차 종류와 차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우롱차는 몇 번이나 우려 마실 수 있는지, 녹차와 홍차를 우려 낼 때 물의 온도가 왜 달라야 하는지 등 독자들이 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주고 있다.

최성희 지음/ 중앙생활사/1만원/문의:02-2253-4463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 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예탁 : 1. 생약재배기술지도
-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회비 : 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 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하시기 바람에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기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제일은행 158-10-010071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